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06  
2011. April 4

영도등대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창사 4주년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온천호텔  
「호텔아쿠아팰리스」

「호텔아쿠아팰리스」는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온천호텔로  
38°C 천연 암반 심해온천수가 사용된 워터 테마파크입니다.



21F	전망라운지
19~20F	스카이라운지
10~18F	객실
4~9F	워터파크
3F	중연회장
2F	대연회장, 소연회장, 일식당
1F	로비라운지, 팜레스아쿠아리움레스토랑

낭만이 깃든 초록빛 내음 가득한 그곳에  
「호텔아쿠아팰리스」가 있습니다.



HOTEL AQUA PALACE  
호텔아쿠아팰리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인2동 192-5  
Tel. 051-756-0202 Fax. 051-790-2366



대표이사 강준구

23년 전통의 여행동반자  
진성관광여행사!



- 외국인 국내여행
- 해외여행 · 히나문 · 회의 · 연수 전문
- 불교성지순례
- (인도 · 미얀마 · 스리랑카 · 중국 · 대만)
- 국제 · 국내선 항공권 예약 · 발매
- 각종비자 소속대행

Your Travel Mate  
 진성관광  
JINSUNG TRAVEL CORP.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2-6 (해동화재빌딩 201호)  
Tel. 051)465-3333 Fax. 051)462-4544

발행·편집인 이근수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자, 박원기자)  
 발행일 2011년 4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70-96 나선리초 202  
 TEL (051)206-7500 FAX (051)205-7767  
 E-mail: bfn@busan@hanam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051)469-3563



포지 영도등대

- 06 부산 영도구 관광개발 청사진
- 11 관광객 86% "다시 찾고싶은 부산"
- 12 지난해 건강여행수지 시장 첫 촉자
- 15 시, 외국인관광객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 16 5월 1일 '2011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
- 18 걷고싶은 '길맛길' 체험 시청공무원이 앞장
- 19 기장군, 나비생태공원 재시동
- 20 부산문화재단, 메세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 22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10년 맞아 부산축제 준비 한창
- 23 제8회 초량 차이나타운특구 축제 개최
- 24 해운대해변 '꽃의 내부' 포토존 관광객들에 인기
- 25 어린이대공원 무료 숲 체험교실 문열어
- 28 아쿠아펠리스 8·리조트 특급호텔
- 32 호텔가 소식
- 36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호스
- 38 칼럼 · 꿈과 꽃 활성화를 위한 관광희망품의 개선방향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대외협력본부장 김 종 규



'부산어린이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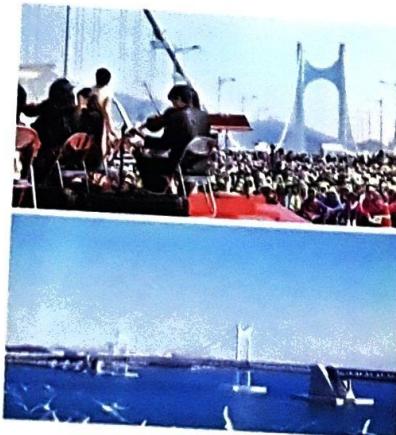








## 5월 1일, ‘2011다이아몬드 브릿지 걷기축제’ 부산대표 관광상품, 세계적 이벤트로 발전 가능



‘2011 다이아몬드 브릿지(광안대교) 걷기축제’가 5월 1일 개최된다. 축제사무국에 따르면 개인 외에도 가족이나 모임, 노년회 등是为了 위한 기업체 등의 단체 참가 신청이络하고 있다. 미리문이나 자전거 행사와 달리 걷기축제는 제작부담이 없어 가족단위 및 단체 참가가 많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회 행사 때와 비슷한 차로 광안대교와 성관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공연, 대교 위에서 바다와 해변을 무대로 대규모 클래식 공연을 갖는 국내에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인하다. 축제사무국은 “광안대교 걷기축제는 특하고 참신한 기회으로 부산 대표 관광상품이자 세계적 이벤트로 발전 가능하다”며 “다이아몬드 브릿지가 호주 시드니의 하버 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하는 데貢할 것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걷기축제는 이날 오전 8시 해운대 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에 집결하면서 시작되며 간단한 사전 행사와 품종기 체조를 한 뒤 광안대교로 진입한다. 각국의 가장 빠른 행인이 선두에서 시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오전 10시 광안대교 성관에 마련된 특별무대에 도착하면 오케스트라 공연이 50분 가량 이어진다. 올해는 광안대교를 문화축제 기관으로 조성해 미모이 힘찬 아카펠라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 감상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광안대교를 마치 긴너 12시께 최종 도착지인 낙구 대안동 무경네 운동장에 모인다. 이곳에서는 댄스팀 공연과 푸짐한 경품행사가 마련된다.

김대현 기자



## “부산서 해양레포츠 맘껏 즐기세요”

본기자인 해양레포츠 시즌이 찾아왔다.

부산시는 나동강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시내 10곳에서 다양한 해양레포츠 강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월 말까지 7개월간 나동강 육속도와 양도 해양대, 대내포 및 송도, 해운대 해수욕장 등에서 열리는 이민 강습은 캐쿠지, 딩기요트와 원드서핑, 카이트서핑 등 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강습은 부산시조정협회 등 7개 단체가 주관하며 학생을 위한 체험활동에서 기초단계 교육까지 총 600명이 1~4개의 세부프로그램에 지원했다.

특히 수영민 요트경기장에서 1023㎡부터 매년 상설 운영되는 요트학교에서는 국제공인 요트학교 출신의 전문 강사를 교육을 받는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제재인증스쿨(ISSY)이 인

정하는 부산시조정협회 공인 수료증과 함께 해양활동과 장비 부상대 이동의 편의도 함께 준다. 또 대내포, 송도 해수욕장과 육지 일대(6~8월)에서는 원드서핑 아카데미 및 윈드서핑과 딩기요트, 캐쿠지, 빅카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수영민 요트경기장 등 일부 지역에서 열리던 해양레포츠 교육을 지난해부터 10곳으로 확대했고, 대아웃도어 이곳을 이용한 시간은 지난해 5만여 명에 이르렀다. 시장은 “올해부터 서부산권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0억 원을 들여 낙구 해양레포츠 편의시설을 완공했으며 사업비 18억 원 규모의 송도 해수욕장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공사는 추진하고 있다.”

문의 051-888-3224  
김대현 기자

## 걷고 싶은 '갈맷길' 체험, 시청공무원이 앞장 부산시 관광협회, 부산지역 여행사도 참여

부산시청 공무원이 휴일을 이용해 갈맷길 체험길에 나섰다. 부산시 행정자치국 직원 180명은 최근 해운대구 좌동 대천공원 입구에 모여 4시간 동안 장산 너덜길을 걸었다. 산행을 하면서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했다. 부산시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걷기 불편한 구간, 위험구간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 전국 최고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시공무원이 시청 전실·국·본부 단위로 분기별로 갈맷길 걷기 체험행사를 할 계획이다. 시는 2단계로 구·군과 유관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1단체·1사 갈맷길 결연 행사를 한다음 3단계로 부산시관광협회와 부산지역 여행사가 참여하는 갈맷길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갈맷길 관광상품화'를 위해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초청해 시행하는 패тур에 때 갈맷길 걷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설명회에서 갈맷길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객원기자



## 기장군, 나비생태공원 재시동 사계절 종합 레저관광지로 만들 계획

기장군이 최대 사파리형 테마파크인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기장군은 최근 나비생태공원의 민간사업자인 (주)버티플라이랜드 부산(대표이사 김만봉)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기업 투자자 유치와 행정적 지원 등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장군은 김양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나비생태공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까지 구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대에 조성되는 나비생태공원은 관람객들이 살아 있는 나비 수천마리를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파리형 전시관이다. (주)버티플라이랜드 부산이 975억원을 투자해 사용수익권을 갖고 3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는 BTO(건설이전운영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2009년 1월 기장군과 (주)버티플라이랜드 부산은 실시협약을 갖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합의했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대출 및 금융협약을 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기장군에 따르면 나비생태공원이 조성되면 861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152억원에 달하는 부가창출효과는 물론 1만 46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총 763억원(연간 2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은 나비생태공원을 인근에 조성중인 월드컵빌리지와 연계해 일대를 사계절 종합레저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부산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대에 조성될 나비생태공원 조감도



## 부산문화재단, 메세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예술단체 지원 동시에 기업 이미지 제고, 조직 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



기업이 예술 문화단체를 지원하면 재단에서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금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진행돼 예술단체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참여기업의 후원효과도 배가되는 시스템이다. 재단에서는 건당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매칭 비율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차등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이 현금지원 뿐 아니라 현물이나 시설 공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창원과 기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마상 어떤 예술 문화단체를 지원해야 한지 망설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부산문화재단이 나섰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22일까지 지역의 예술 문화단체를 후원할 기업체를 모집했다. 유학, 연구, 무용, 국악, 시각, 문화, 기타 등 7개 분야에 모두 40개의 부산시의 예술 문화단체가 신청을 했다. 참여 회망 기업들은 재단 홈페이지([www.bsf.or.kr](http://www.bsf.or.kr))에서 단체들을 확인한 후 후원하고자 하는 곳을 지정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기업이 예술 문화단체를 지원하면 재단에서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금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진행돼 예술단체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참여기업의 후원효과도 배가되는 시스템이다. 재단에서는 건당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매칭 비율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차등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이 현금지원 뿐 아니라 현물이나 시설 공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예술단체와의 긴연을 통해 후원을 확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문화재단이 특별 제작한 메세나 인증 لو고 및 인증패, 인증서 등을 제공하며 해당 기업의 사회문화 공헌에 대한 대외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종우 부산문화재단 대표는 “기업이 메세나를 하면 예술과 기

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장 내 창의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된 뿐만 아니라, 노사 화합과 애사심 고취 등 직원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은 노력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홍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부산문화재단의 메세나 지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권유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간테이너 전문 운송회사(주)누엔로지스틱은 최근 몇 년 새 기업의 이미지가 절고 활기차게 변화했다. 지난 2009년 연극단체 동그라미그리기에 대한 메세나 후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다. 공연티켓 지원을 통해 자사 직원들은 물론 거래처 직원들까지 함께 연극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단합심과 애사심이 높아지고 홍보효과까지 더해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회사 박현기 대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주어져 메세나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입시학원으로 유명한 (주)부산학원도 해마다 산은주부용단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예술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맞출 지원하는데 대한 직원들의 만족감과 가공심이 높다”는 게 이 회사 이호영 이사의 말이다. 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다.

문의: (051) 722-

722-7777





## 해운대 해변 ‘꽃의 내부’ 포토존 관광객들에 인기

해운대 해수욕장에 꽃모양의 예술작품 포토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작품은 세계적 미술가장 테니스 오펜하임의 작품으로 가로 8.5m, 세로 8m, 높이 6m 크기로 제작, 사진하기 좋은 곳으로 신성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_김대현 객원기자



## 어린이대공원 무료 숲 체험교실 문열어 월요일 휴관, 참가비 무료

어린이대공원 숲 속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동·식물을 관찰하고, 나뭇잎 타본 같은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숲 체험교실이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 초·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어린이대공원 숲체험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교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요일 휴관, 참가비 무료, 숲 체험교실에서는 전·현직 교사, 주부,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숲 해설사로 활동한다. 숲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은 이들은 하루 7~8명씩 활동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

한 숲 이야기를 들려준다.

숲 체험교실은 참가자들의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하며 자연소리 듣기, 나뭇잎 닉본 새기보기, ‘풀잎궁예 배우기’, 야생동·식물 관찰하기 등 숲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체험하는데는 3시간 정도 걸린다. 어린이대공원 숲체험 학습센터는 지난날 15일까지 1차 숲 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 1만~7천여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수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2차 숲 체험교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6월 예정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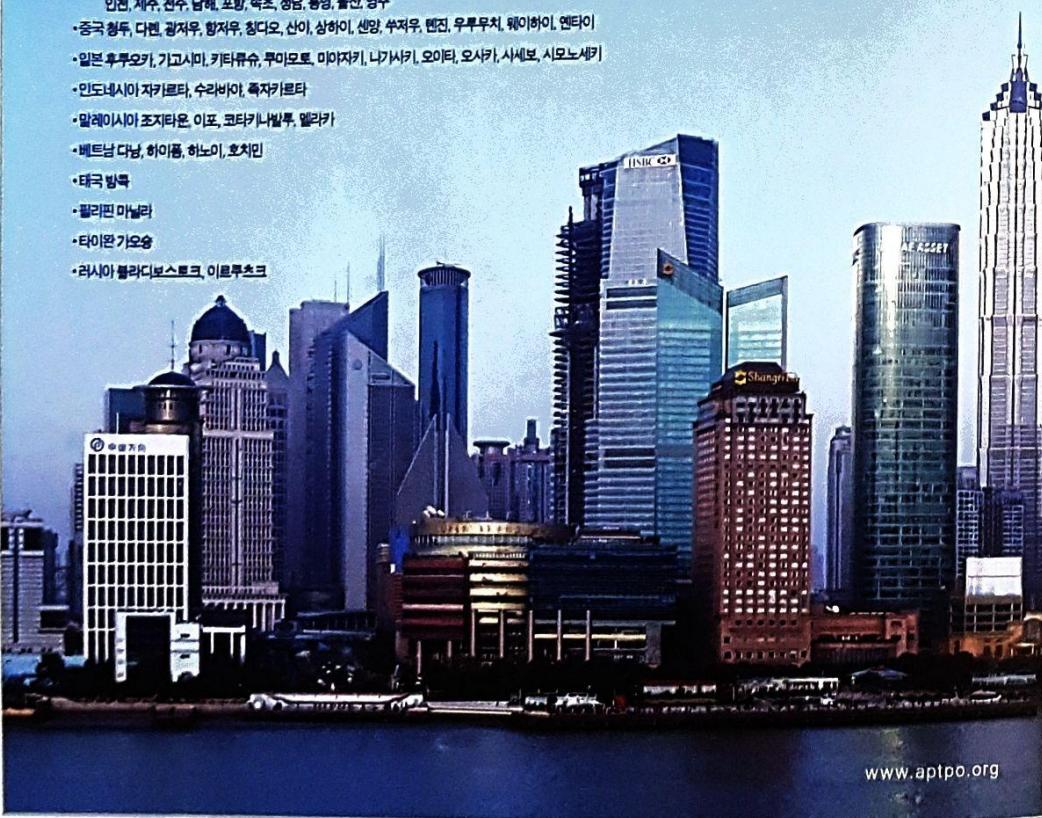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인천,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김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용인,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이, 상하이, 선양, 수저우, 베이징, 우루무치, 웨이하이, 엔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기타큐슈, 키키히코,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리비아,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케리가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찌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wan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http://www.aptpo.org)

세계도시 부산의 랜드마크인  
용두산공원에  
**부산타워** 가 있습니다.

지상 189m 높이의 전망대에서 바다와 도심경관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타워**  
BUSAN TOWER

두모 C & C 부산타워  
<http://www.busantower.org>

여행사 보증은

# 여행공제회가

##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제지급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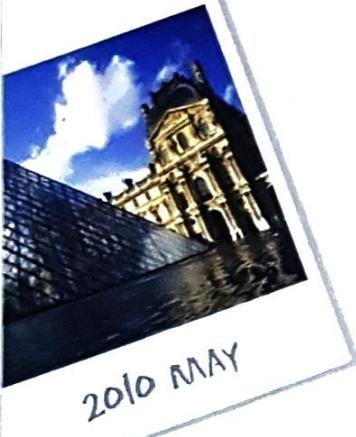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업자, 선박 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현대드림투어, 세종투어몰여행, 롯데관광개발,  
오케이케이션백서비스(주)투어서비스, 레드캡투어, 맥여행사, 자유투어,  
노랑풍선, 한진관광,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여행사닷컴 등

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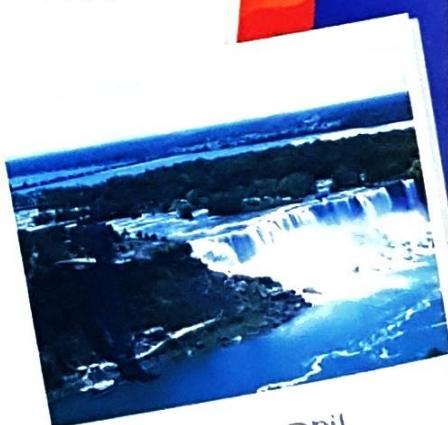
철도 | 한국철도공사

선박 | 큐슈여객철도, 대야여행사, 한일고속, 대야고속해운, 씨월드고속훼미리,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 · 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 종로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 팩스 02-757-7490

KATA 02-752-8692

서울 02-757-7482  
대구 053-746-6407  
광주 062-224-4486  
울산 052-275-2412

강원 033-242-0089  
충남 042-254-5465  
전남 061-285-0833  
경남 055-212-1345-6

부산 051-463-3111  
인천 032-432-4590  
대전 042-226-8413  
경기 031-255-8424

충북 043-231-5563  
전북 063-287-6292  
경북 054-745-0750  
제주 064-742-8861